

티베트 여정, 렌즈에 담아

회정 스님, 3월 8~14일 티베트 사진전

티베트 순례 여정을 오롯이 렌즈에 담아낸 사진전이 열린다. 충북불교사진회 지도 스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정 스님은 오는 3월 8일부터 14일까지 제주 연꽃갤러리에서 티베트 사진전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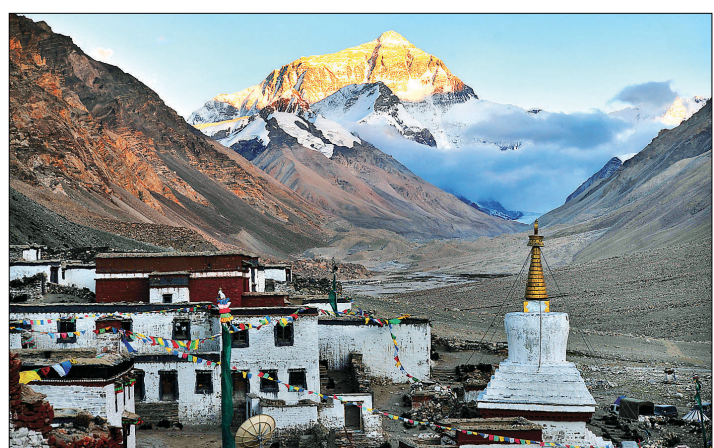
이미 14번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가진 회정 스님은 2010년부터 티베트와 스한성 야칭스, 수미산 등을 다니며 목도하는 풍광들을 렌즈에 담았다. 이번 전시회는 그간 보여주지 않았던 티베트의 속살들을 대중에게 첫 선을 보이는 자리다. 전시작품은 엄정히 선별한 45점이다.

회정 스님은 "티베트는 아름답지만 고행의 땅이기도 하다"면서 "적박한 환경 속에서도 불교의 가르침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풍광을 담고 싶었다. 티베트의 상황에도 한국 불자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진을 찍는 이유에 대해서는 "카메라 렌즈에 투영된 피사체에 집중하고, 셔터를 누르는 순간까지 모두 참선 수행과 비슷하다"면서 "피사체를 제대로 바라보고 이해한 뒤 집중해서 촬영해야 좋은 사진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회정 스님은 제주 전시회에 이어 5월 울산, 6월 청주, 11월 진주·해인사 전시도 계획하고 있다. 4월 중에는 작품 사진을 모아 티베트 사진집을 펴낼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회정 스님의 작품 사진 '에베레스트 석양과 용포사원'

통도사 성보박물관, '가면(假面)전'

2월 16일부터 3개월간

통도사 성보박물관(관장 지준)에서 '제19회 작은 전시, 가면(假面)전'을 개최한다. 작은 전시는 지역민을 위해 다양한 주제로 통도사 성보 박물관에서 마련하고 있는 기획 전시 중 하나다.



통도사 성보 박물관은 '작은 전시 가면전'을 개최한다. 사진은 한국 장성암 작가의 하회탈 사진.

2월 16일부터 문을 연 이번 가면전은 3개월간 전시되며 통도사 성보박물관 2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이번 가면전에는 총 12점 가면 작품과 목점 인물상 2점이 함께 전시된다. 정성암 작가의 작품 하회탈과 중국,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서 온 전통 가면들이 주를 이룬다.

가면은 이처럼 인간의 모습된 이중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그 상징적 대상과 인간 사이를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해왔다"며 "세계 곳곳에서 종교의식을 주관하며 상징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가면은 통해 세계 각국의 문화를 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인간은 스스로 단순한 자연물에 그치는 데 만족하지 못하고 내면에 어떤 초월적 대상을 느끼고자 한다."

하성미 기자

격랑의 마음 '빠알리 찬팅'으로 잔잔하게

정율 스님, '빠알리 찬팅' 음반 완간

2006년 이필림으로 간 스리랑카 그곳에서 '붓다완다나' 음악 만나 삼귀의 前 이뤄진 부처님 찬탄頌

명상음악 형식으로 '빠알리 찬팅' 삼귀의·오계 내용 담아 연작 발매

"7집부터는 찬불가 음악 만들 것" 108인 붓다스 여성합창단 창단도

10년 전, 성악을 통해 음성포교를 하는 수행자로 잘 알려진 정율 스님의 심신은 지칠대로 지쳤다. 음성포교 17년차, 오로지 대중에게 부처님 법을 음악으로 전하기 위해 노력했던 몸과 마음에게는 내려놓음이 필요했다. 스님은 곧 강, 공연 등을 모두 접고 오롯이 수행자로서 선원에 안거를 들어갔다.

2006년 안거를 해제하고 나온 정율 스님은 이전부터 공연 요청을 했던 스리랑카가 생각이 났다. 부처님 담파의 땅, 스리랑카. 스님은 이끄는 대로 스리랑카로 떠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음악을 만났다. 바로 '빠알리 찬팅' 음악이었다.

2013년부터 정율 스님은 거의 매년 '빠알리 찬팅' 음반을 잇달아 발매했고, 최근 마지막 연작 음반인 '부처님과 약속하는 노래'를 내놨다. 개인적으로는 4·5·6집을 오롯이 '빠알리 찬팅'으로 채운 것이다. 그

만큼 스리랑카에서 만난 '빠알리 찬팅'은 스님에 강렬하게 다가왔다.

"스리랑카에서 머물던 어느 날 불교백화점에 갔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음악이 들려왔어요. 매장 담당자를 찾아서 음반을 문의했더니 이제는 구할 수 없는 복사본 음반이더군요. 절실히 원하는 모습에 담당자는 음반을 복사해줬습니다. 처음 듣는 '빠알리 찬팅'이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포교하면서든 제가 머무는 공간에는 이 '빠알리 찬팅'이 항상 채워져 있었어요."

정율 스님을 매료시킨 찬팅 음악은 '붓다완다나(Buddhavandana)'다. 이 음악의 탄생 배경도 눈길을 끈다. '붓다완다나'는 말레이시아의 신디(Shindi)가 작곡·제작한 것으로 평생 음악과는 일면식도 없던 범부였다. 그런 그가 사찰에 다녀오던 중 시내에서 길을 잃었고 당황한 신디는 찬팅을 하기 시작했다. 찬팅이 진행되자 어디서 부턴가 멜로디가 들려왔고, 그는 이를 녹음해 피아니스트에게 부탁해 곡을 쓰게 했다.

'붓다완다나'에 담긴 뜻은 부처님에게 보내는 찬탄과 예경이다. 남방불교에서는 삼귀의를 행하기 전에 이뤄지는 의례라고 스님은 설명했다. 실제, 정율 스님의 '빠알리 찬팅' 연작 앨범도 부처님에 대한 예경(4집 '부처님께 예경하는 노래')으로 시작해 삼귀의(5집 '삼보께 귀의하는 노래'), 오계(6집 '부처님과 약속하는 노래')로 이어지며 마무리 된다.

4집은 신디의 '붓다완다나'를 토대로 제

작했지만, 5·6집은 모두 정율 스님이 작곡했다. 장단음이 분명한 빠알리어를 잘 살리기 위해 전문가 스님들에게 자문을 거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연작 앨범 모두 찬팅인 만큼 모두 잔잔하며, 차분하다. 스스로 마음을 달래기 위한 명상음악으로도 손색이 없다.

"스리랑카에서 저는 '붓다완다나'를 염송하면서 많은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 음악을 접하는 불자들도 부처님 당시 모든 불제자들이 간절히 염(念)했다는 '붓다완다나'를 일심으로 염송하시길 바랍니다."

찬팅 음반을 마무리한 정율 스님은 이제 다시 찬불가 포교에 나설 계획이다. 준비하고 있는 7집도 찬불가 음반이 될 계획이다. 또한 스님은 지난해 7월 15일 '108인의 붓다스 합창단'을 창단해 지휘와 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붓다콘서트' 무대에 서기도 했다.

"여성들로 구성된

붓다스 합창단은 연령·지역도 다양합니다. 오로지 불교를 사랑해서, 노래와 정을 이라는 비구니 스님을 좋아해서 모인 합창단이라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아직 창단 음악회를 하지 않았는데 조금 더 실력이 완속해지면 공연하려 합니다. 후에는 열반한 스님들에게 조가(弔歌)를 공양하는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신성민 기자



정율 스님이 자신의 '빠알리 찬팅' 음반을 들어보고 있다. 스님은 최근 6집 '부처님과 약속하는 노래'를 발매하며 '빠알리 찬팅' 연작 앨범을 마무리했다.

역대 최대 규모 불교박람회 열린다

2016서울국제불교박람회, 280업체 참여 '기록 갱신'

대목장 최기영 등 장인들도 참여 '마음이 쉬는 공간' 주제 기획전 BAF, 청년미술가 발굴 전시회도

오는 3월 24~27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리는 2016서울국제불교박람회(이하 불교박람회)가 '역대급' 불교박람회가 될 전망이다.

박람회 사무국에 따르면 현재 불교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는 280여 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 수치는 붓다아트페스티벌(Buddha Art Festival, 이하 BAF) 참여 작가들을 포함한 것으로 지난해에는 242개 업체 450부스(BAF 포함)가 참여했다.

올해 불교박람회의 업체 모집 진행 결과 참여를 결정한 일반업체의 규모는 183개 업체 244개 부스다. 이는 기획전과 특별전, 체험전을 비롯해 국제교류전에 참가하는 해외 업체들의 수를 제외한 숫자로, 첫해에 비해 약 150% 성장한 규모다.

특히 올해 기획전의 주요 테마는 '마음이 쉬는 공간'을 주제로 한국의 불사업을 대중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이에 발맞춰 최기영 대목장, 우리문화 속에 우수 상품을 선별하고 판매를 지원하는 전통문화우수상품전, 전통문화산업의 새로운 상품개발을 도모하는 신상품전 등이 준비될 예정이다. 또한 불교문화와 첨단 IT기술의 접목을 시도하는 360VR 부스도 선보일 예정으로, 총 18개 부스가 기획전으로 준비된다.

매년 관람객들에게 가장 많은 호응을 얻었던 특별전에는 사찰음식과 템플스테이전, 불교출판문화협회가 유치되었으며, 불교사회복지사업을 육성하고자 불교사회적기업전도 특별전으로 준비되어 불거리가 더욱 많아질 예정이다.

또한 불교박람회의 세계적인 위상을 보여주는 최의인 국제교류전도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불교박람회 사무국 측과 MOU 협약을 맺은 중국 샤먼(廈門) 국제불사용품전람회 측은 올해도 15개 업체에서 20개 부스의 규모로 참가할 예정이며, 중국 푸젠성 측에서도 7개 업체 10개 부스로 참가한다.

불교박람회에서 또 하나의 주요한 축으로 자리 잡은 BAF도 참여 작가들의 규모를 마무리지었다. 올해 BAF에는 100여 명의 작가들이 최대 68개 부스의 규모로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실력있는 청년작가들을 발굴하고 그들만의 작품세계를 선보이기 위한 '청년불교미술작가작가전'을 신설했다.

올해 새롭게 참여를 확정지은 작가 중 가장 눈에 띄는 작가군은 한국의 전통문화 산업을 이끌고 있는 장인들이다. 그중에서도 중요무형문화재 74호 최기영 대목장은 이번 불교박람회의 주제인 '마음을 쉬는 공간' 기획전을 이끌어 줄 계획이다.

최기영 측은 "불교박람회는 한국 불교문화의 현수소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장이자, 국내 유일의 한국전통문화산업 박람회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올해는 '마음이 쉬는 공간'을 주제로 한국불교의 불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걸맞는 각종 산업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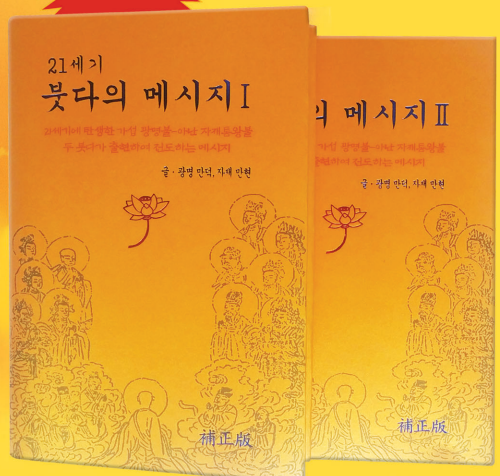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가섭 광명불, 아난 자재통왕불 두 붓다가 전하는 21세기 부처님의 메시지! 동서고금의 모든 종교·철학서를 뛰어넘는 우주적 진리 신불교의 메시지!

보정판



나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사람 되어 부처님 계을 잘 지키고 대승경전 읽고 염불공부 잘 하면 금생도 다음생도 행복할 것이며 윤회생사도 벗어나고 왕생극락까지 하리라'고 가르치고 싶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보정판 발행 대승불교를 완성한 영산불교의 만자 가르침을 펼치다

- 1. 부처님의 실존에 대한 불교사상 최초의 생생한 체험적 증언!**
부처님께서 대반열반 하신 후 2600여년이 지나는데 아무도 우리 부처님의 소식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불교를 이룬 가섭존자와 아난존자께서 불교사상 처음으로 부처님께서는 절대계에 있는 당신의 불신으로 돌아가 여여히 계심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 2. 사후 윤회세계와 애달세계의 존재를 증언, 올바른 생사관 정립!**
영산불교 큰스님께서 사후의 지옥·축생 등 육도윤회세계와 극락 등 해탈세계를 직접 보고 그 존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명부도 못 들어간 중음계의 귀신세계도 있습니다.
- 3. 불보살이 되는 팔정도 칭명염불법을 정립, 올바른 깨달음으로 인도!**
불보살이 되는 유일한 정통수행법인 팔정도 칭명염불법을 새롭게 정립, 부처님의 가르침 선정·삼매에 들어 눈이 열리고 지혜와 힘이 생겨 해탈열반하는 올바른 깨달음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 4. 무아와 윤회주체간 논란에 종지부-영혼체가 윤회주체를 선언!**
기존불교에서는 왜곡된 무아론을 토대로 윤회의 주체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왜곡된 무아론을 바로 잡고 인간본체인 영혼체가 윤회의 주체라고 선언하여 2000년 이상 불교계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무아와 윤회주체간의 모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 5. 인간과 우주만물의 지고한 탄생 비밀 처음으로 밝혀!**
어떠한 종교·철학에서도 몰랐던 인간과 우주만물의 탄생비밀을 처음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이 되면 공의 힘과 창조 원리, 중생의 공업력에 의해 공에 내재되어 있던 인간종자(공아자)와 물질종자(질료인자) 중중무진진기를 통해 인간이 되고 우주만물로 탄생하게 됩니다.